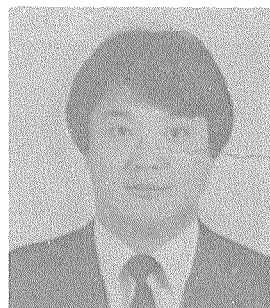


우리의 전자산업을 생각한다.

변동준 / 본회 비상근 이사
삼영전자공업(주) 사장



요즘의 신문을 펼쳐드노라면 정말 기업을 꾸러가는 한사람으로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중 특히 본인의 시선을 붙잡는 곳은 어김없이 신문의 경제면이다. “전자업계 떡구름” “내수부진” “수출비상” 등등.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각 신문의 題號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특히 우리 三鑿같은 경우는 AI電解콘덴서를 專門的으로 生産하는 부품업체의 특성상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SET 메이커의 부진은 곧 바로 우리의 매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작년의 경기침체의 양상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구조가 일대 조정국면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사실 우리의 전자산업을 돌아보면 노동집약형 산업의 전형적 形態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전자산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막강한 기술경쟁력으로 전자분야를 위시한 각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전자분야의 세계제패가 끝난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 역시 계속되는 무역흑자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며 대만산 컴퓨터 등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경제후발국이라고 우리가 자신과 여유를 가졌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추격이 결코 만만치가 않으며 이들의 추격을 자신있게 뿌리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후발신흥공업국들이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보고 배우자는 태도에서 이제는 한국을 닮지 말자라는 내용의 국내 일간신문의 기사를 읽고 느낀 비에는 그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비통한 것이었다. 우리 三鑿의 경우에도 국내 및 수출경기에 관한 메스컴의 보도사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수출 및 내수경기의 침체가 완연히 드러나기 시작하여 당초 설정 하였던 매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 내수경기의 침체양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며, 비록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가 향유 하였던 그러한 경기로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걸어가야 할 길

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三鑿의 경우, 항상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투자를 과감히 해왔다는 나름대로의 투자철학이 있다.

비록 경기침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生産性向上, 新製品開發, 生産施設改善을 위한 투자 등에 결코 인색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임금에 의존했던 우리의 생산체계에서 과감히 탈피함과 동시에 부단한 기술개발노력을 경주하여 기술수준향상을 꾀하고, 치열한 국제경쟁하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일본을 위시한 電子産業 선진국들의 독주와 뒤로는 후발공업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독자적인 산업체계의 構築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급선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30분 더 일하기 운동」의 전개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저력을 굳게 믿으면서 내일을 향한 오늘의 각오를 다져본다.